4강 광인은 어떻게 발명되는가

(1교시)

■ 광인을 바라보는 방식 - 시선, 웃음, 빛

※ 학습목표
광인은 어떻게 발명되는지 알아본다

▲ 시선
소설의 시작부터 집요하게 등장하는 어떤 시선들이 그를 불안에 떨게 하고 의심하게 하며 때로는 분노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이유, 그것을 그는 '식인'의 풍습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소설의 주인공이 앓고 있는 '피해망상증'은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의 의심이 터무니없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주인공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어떤 대상이 특정한 방식에 의해 병자로 분류되는 방식이며 그 방식의 하나로 다수의 특정한 시선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유전되고 있는 식인풍습을 그 자신이 병자가 됨으로써 비판하지만 '인의도덕'에 익숙한 다수의 시선들의 감각으로는 그것이 단지 질병으로 이해될 뿐이다.

▲ 웃음
시선을 통해 광인이 만들어진다면 웃음은 광인으로 확정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식인'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가치화하는 시스템의 작동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식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건 두려워서 모두들 지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 상대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다.

▲ 빛
"오늘 밤은 참 달이 밝다. 달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나 되었다. 오늘 보니 기분이 유난히 상쾌하다. 지나온 30여 년 동안을 완전히 혼미 속에서 지내왔음을 겨우 알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달과 연관된 존재들은 늑대인간처럼 광기를 가진 존재들이다. 『광인일기』의 광인은 달을 보고 자각하게 된다.

"오늘은 전혀 달빛이 없다. 나는 이것이 좋지 못한 징조라는 것을 안다."

사람들의 시선은 광인을 불안에 떨게 한다. 광인은 달을 보고 자각하고 새로운 종류의 질서를 갖게 되었지만 이성의 세계-태양의 세계인 낮에는 식인들이 광인을 만들어내는 질서가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장명등을 꺼버리면 우리 지꾸앙(吉光)마을이 무슨 '길한 빛' 마을이 되겠나. 끝나고 마는 게 아닌가? 노인들의 말로는 이 등은 양나라 무제가 켠 이래 지금까지 쭉 전해 내려오면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한 번도 꺼뜨려 본 적이 없었다지 않나....(그런데 그는) 사람만 보면 언제나 묘당의 장명등을 꺼버리자고 했다는 거야. 그는 등을 끄면 다시는 메뚜기의 피해나 질병의 고통이 없을 것이라면서."(『장명등』)

마을 사람들은 장명들을 켜놓고 사당에 자신의 소원들을 빌고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데 광인은 그것을 부정하려 한다. 루쉰은 몇 천년동안 이어져오던 풍습을 빨리 끊어버리자는 것을 상징적으로 장명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식인은 누구인가

"그 여자가 '너를 물어뜯어 놓겠다!'고 한 말이나, 험상궂은 얼굴에 이빨을 드러낸 무리들의 웃음이나, 엊그제 소작인의 말이나 모두 틀림없이 저희들만의 암호였다. 그들의 말에는 독이 가득 차 있고, 웃음 속에는 칼이 숨어 있으며, 그들의 이빨은 온통 새하얗고 뾰족뾰족하게 나란히 박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도구인 것이다." 식인의 무기는 그뿐만이 아니다. '꾸자유(古久) 선생의 오래된 출납부'속에도 있고, 오래된 역사책의 페이지마다 비스듬하게 쓰여진 '인의도덕' 속에도 있으며, 비과학적인 의학지식 속에도 있다. 그들은 '나쁜 놈은 죽여서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위에서 자야한다'고 생각하고, 소작인의 소작료를 절대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인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것만도 아니다. 즉 힘없고 가난한, 보통의 민중들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굴욕과 모욕에 길들여진 탓에 그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지만, 루쉰이 보기에 그들은 '창 없는 철방'에 누운 채 잠을 자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광인은 그 방에서 깨어난 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4강 광인은 어떻게 발명되는가

(2교시)

■ 광인의 자각과 희망

※ 학습목표
광인이 식인들의 세계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자각하는 지를 이해한다

▲ 효(孝) 이데올로기
자연계의 배치에도 결함이 없을 수 없으나 연장자와 연소자를 결합시키는 방법에는 착오가 없다. 자연계는 '은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동물이나 자기의 어린 자식을 진지하게 사랑한다. 그들은 이득을 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의 장래의 생명으로 하여금 발전의 행로로 나아가게 한다.(『우리는 지금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식인들은 '충효'를 위해서는 자식을 죽이거나 형제를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다. 즉 유교적인 윤리의 비윤리성과 폭력성이 식인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작년에 렌꺼촌에서도 한 놈 때려죽였지요. 이런 놈을 말예요. 여럿이 굳게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모두가 일제히 손을 대서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댔는지 모르게 한 거지요. 그 후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장명등』)

「아버지노릇」이라는 글에서는 아비가 아버지노릇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한다고 루쉰은 말하고 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거리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루쉰의 생각이다.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려면 가장 밀접한 관계부터 다른 관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 광인의 자각
광인이 식인들과 같은 '철방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광인은 자각한다. 자기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형에게 식인이 되는 과정을 교육받았고 현재는 식인행위를 하지 않지만 한때는 식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광인의 자각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인간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인간에 비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벌레가 원숭이에 비해 부끄러운 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쉰의 탁월함은 오히려 광인이 식인들과 소통하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루쉰은 식인과 광인이 서로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의 발견은 이성과 광기의 서구적 이분법을 넘어서 있으며 그 안에 반성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식인은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정상인 자, 전통과 유습에 사로잡혀 있는 몽매한 다수자이다. 광인은 비정상인이지만 정상인자, 현재에는 비식인이지만 과거에는 식인이었던 자, 하지만 식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인화 과정에서 이탈한 시대의 소수자이다. 이 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그 꼬리를 끊어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인간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루쉰은 감추지 않고 말한다.

▲ 쉽지 않은 희망

광인일기의 끝부분은 이렇게 끝난다. '사람을 잡아먹어 본적이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을까?' 『장명등』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당에 갇혀있는 주인공의 고함소리에 놀라 놀던 아이들은 달아난다. 녹색의 장명등은 한층 더 녹색의 신전과 감실을 밝게 비추고 있고, 아이들은 *'모두가 웃으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노래를 엮어서 합창'*할 만큼 아직은 몽매하고 세상은 태평하다. 또 혁명가의 피를 바른 만두를 먹은 아이는 결국 죽어버린다.(『약』) 하지만 루쉰은 전사다. '태평'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시 투창을 치켜든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